

中國 少數民族 文化接變 樣相의 變化: 回族과 彝族의 文化를 중심으로

김 덕 삼
(대진대학교)

1. 序論

中國에는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文化를 지닌 民族이 56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분되어 中國이라는 울타리 속에 편입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국가와 영토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성립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공간에 대한 지배가 보다 명확해지고, 이에 더하여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이후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기 위한 과정 속에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民族의 정체성과 구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민족 대 민족의 관계만을 놓고 보면, 中國의 少數民族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文化적으로 접촉하면서 다양한 교류를 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文化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민족간 혹은 국가간 이루어진 文化교류는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대등하지도 평등하지도 않게 진행되었다. 과거 中國 역사를 살펴봐도 인구 규모나 文化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漢族과 주변 민족들의 교류는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개 일방적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주변 민족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면서 漢族과의 교류 속에 문화를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 몇몇 민족은 中國 대륙을 지배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漢族과 少數民族의 文化接變(acculturation)이라는 두 문화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문화 변동은 일방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中國 중앙의 권력이 강해진 이후, 문화접변의 양상은 자발적인 문화접변에서 강제적인 문화접변으로 나타났다. 특히,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되고, 中國 중앙의 통제와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少數民族 지역으로의 통제와 간섭은 강제적인 양상을 갖고, 少數民族은 이러한 변화에 피동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융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수단이나 강압을 통해서가 아닌, 경제와 문화적인 영향력의 확충을 통해 ‘自願의’인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¹⁾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개혁개방이후에 가능해졌다. 개혁개방의 경제적 풍요와 현대화는 中國과 少數民族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첫째, 경제적 풍요는 계층간, 지역간, 민족간 부의 불균형을 일으켰고, 少數民族의 반발을 야기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中國 상위 1%가 전체 富의 41.4%를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해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中國의 지니계수가 0.55선으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0.6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中國의 富가 한쪽으로 쏠려있고, 이는 사회불안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中國 國家行政學院에 따르면 胡主席이 집권한 지난 2003년에 5만 8000건이었던 각종 시위 건수가 2010년에는 18만 건을 넘어섰다고 했다. 불과 7년 사이에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中國 사회는 사소한 불만도 폭동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비단 계층만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간,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上海의 1인당 GDP가 貴州의 7배로, 지역 간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中國 서부에서는 ‘우리는 中國의 내부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온다.²⁾ 물론 少數民族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1) 翁獨健 編, 『中國民族關係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118-120쪽. 물론, ‘민족 융합’ 이전에 단결과 접근을 강조하고 공동발전을 강조해 동질성을 확보할 것이다. 李維漢, 『統一戰線問題與民族問題』, 人民出版社, 1981, 554쪽.

둘째, 少數民族 지역의 현대화와 도시화다. 中國 정부는 분열과 반발을 막기 위해 孔子가 말한 ‘和而不同’처럼 다르되 서로 조화로운 국가인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의 中國’을 건설하기 위해 계층간, 지역간, 민족간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개혁개방의 직접적인 영향과 이에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하나의 中國’을 위해 낙후된 少數民族 지역에 대규모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과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다. 물질 문화는 정신 문화와 상호 연관되어 변한다. 이러한 물질 문화의 변화는 少數民族문제에 있어 개인화, 탈이념화를 자연스럽게 이식하였다. 민족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도시적, 현대적 삶에 대한 동경 속에 ‘自願的’인 자발적 문화접변의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少數民族 전통의 와해와 漢族과 少數民族을 아우르는 거대한 中國民族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강제적 양식에 의해 상호간의 마찰이 지속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 흐름이 자발적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少數民族과 漢族간의 대립 구도를 전통과 현대의 대립 구도로 바꾸며 脫民族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中國 少數民族의 문화접변이 과거 진행되었던 강제적 양상에서 자발적 양상으로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自願的’인 과정으로 민족융합을 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추적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55개 少數民族 가운데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변화의 양상이 다른 回族과 彝族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전통적으로 ‘大分散 小集中’의

-
- 2)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中國의 지니계수는 위험 경계선으로 분류되는 0.4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0.4를 돌파했고, 2006년에는 0.496으로 0.5 선에 육박했다. 그 이후 中國 국가통계국은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조선일보 12. 11.3 A8) 중국 국가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순소득이 2005년에는 농촌지역이 3225위안이었고 도시지역은 1만493위안이었던 것이, 2011년에 이르러 농촌지역은 6977위안 도시지역은 2만 1819위안으로 많은 차이를 두고 변화였다. 농촌지역 1인당 연간 순소득이 도시지역의 4분의 1 수준으로 벌어졌다. 또한 농민 출신으로 도시 하급 노동자로 전락한 農民工도 장쩌민 시기에 비해 1억명 증가한 2억명으로 추산된다.

형태로 살면서 漢族 문화의 적극적 수용을 비교적 일찍 시행했던 回族을 중심으로 문화접변의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回族과는 다른 양상을 지닌 채, 편벽한 곳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화와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는 彝族을 중심으로 자발적 문화접변의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彝族 사회와 문화의 변모를 알아보려 한다.

彝族의 경우 雲南에 自治縣을 이루고 사는 민족을 중심으로 했고, 回族은 中國 도시, 특히 北京에 거주하는 回族을 중심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두 비교 집단에서, 오랜 기간 편벽한 곳에서 자신만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해왔던 彝族과 中國 진입 이후부터 漢族과의 通婚을 통해 漢化된 回族은 연구에 있어서 時間과 空間의 間隙을 매워줄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II. 回族 文化接變의 樣相

回族은 2007년 발표 기준으로 9,816,805명으로 少數民族 가운데 3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또한 이들의 거주 지역은 매우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 寧夏, 甘肅, 河南, 新疆, 青海, 雲南, 河北, 山東, 安徽, 遼寧, 北京, 內蒙古, 天津, 黑龍江, 陝西, 貴州, 吉林, 江蘇, 四川 등지에 두루 분포하며 생활하고 있다. 回族은 서기 13세기,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인과 아랍인들이 이주하여, 漢, 蒙古, 위구르 등의 민족에게 흡수되어 점점 하나의 통일된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봉건제의 농업경제다. 봉건제의 농업 경제는 궁극적으로 回族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둘째로는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回族의 공통문화, 풍속, 심리소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³⁾ 전통적으로 回族 대부분은 교통의 요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경제가 비교적 일찍부터 발달되었고, 문화의 다

3) 馬維良, 『雲南回族歷史與文化研究』, 雲南大學出版社, 2000, 53쪽.

양한 수용과 전파가 가능했다.

回族 문화변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있어, 위구르족과의 비교는 중요하다. 위구르족은 中國에서 回族과 더불어 무슬림을 대표하는 민족으로써 이 두 민족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무슬림이란 것과 민족의 시원에서는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체성의 유지와 변화, 거주 및 분포 지역, 언어의 존재, 전통의 보존 정도, 中國 중앙정부에 대한 태도 등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사실 무슬림은 처음부터 回族 무슬림과 위구르족 무슬림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런데 1884년 11월 18일 위구르 지역이 淸의 영토에 편입되면서 판도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 中國 中央의 위구르족에 대한 견제와 이슬람 정체성의 축소는 강제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漢族의 이주와 경제권의 장악으로 목적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신장의 위구르족은 漢族의 대규모 이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성공과 이슬람원리주의의 유입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이슬람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분리주의 운동도 불사하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中國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의 이슬람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테러주의로 간주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中國 정부가 위구르족의 이슬람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제압하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규모의 漢族 이주를 통해, 우선적으로 신장 지역의 인구구성 비율을 漢族 우위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구르족의 이슬람문화를 漢族 문화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中國語를 구사하고 漢族 문화로 동화된 回族 무슬림을 통해 위구르족 무슬림을 분열시키고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원래 위구르족은 이슬람 종교, 투르크 언어, 문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역사를 공유하며 신장에 살고 있으면서도 中國의 漢族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있는 별개의 집단이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종교적·언어적·인종적 영향을 받은 민족이다.

반면에 回族 무슬림의 조상은 中國의 이슬람 역사 초기에 아랍이나 페르

4) 황병하, 「신장의 이슬람역사와 中國의 대 이슬람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0-1호, 2009, 111쪽.

시아 등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 中國의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 무슬림이다. 回族은 순수하게 초기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후손들로서 이슬람문화와 교역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中國의 漢族문화로 동화된 집단이다.⁵⁾

과거에는 구분이 없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回族과 위구르족이 漢族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中國정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回族은 위구르족과 다르게 이미 오래전부터 漢族과의 문화접변 속에 漢化가 많이 진척된 민족이다. 回族이 中國 漢族文化에 완전히 동화되고 문화접변을 이루는 데는 약 700 내지 800년이 걸렸다.⁶⁾ 이들의 조상들은 中國 여성들과 결혼하여 中國에 정착하면서 漢族 문화를 다른 민족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의 문화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역사적 특징을 지닌 回族의 문화변동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성씨, 언어, 복장의 변화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성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아랍인의 이름, 페르시아인의 이름, 튀르크어인의 이름 등,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성을 보유했다. 이처럼 성씨는 자신의 조상과 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많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면서도 자신의 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아내의 성을 손으로 바꾸는 편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을 유지했다는 일화에서 한 개인과 민족에 있어 성이 갖는 비중을 알 수 있다. 回族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성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명이나 거주지명을 성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唐나라 李元은 조상들이 살았던 安息國의 이름을 사용해 원래 성을 '安'으로 했다. 또한 北宋의 유명한 화가 米友仁의 경우도 조상들이 살던 米國의 이름을 따라 성을 '米'로 사용했다. 元나라 伯顏察兒의 후예들은 北京에 거주하던 지역의 이름을 따라 '羊'을 성으로 사용하였다.

5) 황병하, 「위구르족 回族 무슬림의 정체성과 문화접변 양상 연구」,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30-3호, 2010, 227- 240쪽.

6) 황병하, 「위구르족 回族 무슬림의 정체성과 문화접변 양상 연구」,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30-3호, 2010, 252쪽.

둘째, 漢族의 성을 사용하였다. 주로 황제가 성을 하사해 주거나, 스스로 漢族의 성을 사용한 경우다. 唐나라 李元이 貞元3년(787)에 공로를 인정받아 황제에게 성을 하사 받아, 원래의 '安'에서 '李'로 바꾼 경우, 明 正德시기 武宗이 '朱'씨 성을 하사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성을 漢族의 성으로 스스로 바꿔 사용하였다. 특히, 明 太祖의 강력한 漢化政策에 따라 漢族의 성과 漢語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밖에 자신의 이름을 한역하여 사용하였다. '賽' 納' 哈' 馬' 忽' 速' 撒' 保' 閃' 木' 沙' 蘇' 郝' 13개 성이 그러한 경우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漢族이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回族으로 융합되면서, 자연스레 漢族의 성이 回族的 성으로 편입된 경우다.

성씨의 변화도 그렇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回族的 결혼 양상에서도 변화는 쉽게 발견되었다.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다른 민족의 통혼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특히 北京에 거주하는 沙씨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해 보면 이후 3대에서 가족 구성원의 漢化가 점진적으로 시작되었고, 전통적인 종교의식은 점차 소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대에 이르러, 沙씨 집안의 생활습관 등은 완전히 漢化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성씨뿐만 아니라 回族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언어를 보면, 초기에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漢語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回族的 통용어는 漢語, 제2언어는 아랍어가 되었다. 현재는 漢語·漢文을 주로 사용하면서, 조상들이 사용해온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일상생활 중에 漢語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回族的 漢語 사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回族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거주하고 있기에 漢族과의 접촉이 많아 漢族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대다수 回族은 漢語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골고루 분포해서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回族的 조상들이 군사임무에 복종하여 안정적으로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자연스레 '大分散 小集中'의 거주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回族보다 많은 漢族의 언어에 동화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元明時期 각지에 주둔하던 回族 출신 軍인이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漢

族 사람과 결혼하면서 漢語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回族의 조상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科擧에 응시하여 관직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漢族과의 교류를 늘리려 했다. 이를 위해 漢語의 사용과 漢族 문화의 적극적 수용은 필요 그 이상이였다. 정치적으로도 明 太祖와 같은 漢化政策에 영향을 크게 받아 漢語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아랍문자는 종교 활동이나 回族의 음식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回族의 특수한 형식의 언어인 '小儿錦'이라는 문자가 있다. 이것은 經堂文과 日本文으로 구분되는데, 경당문은 모스크 내에서 학생과 올라마 사이의 간단한 문장에서 이용된 것이며, 많은 아랍어, 페르시아어계의 이슬람 경전의 전문 용어가 섞여 있어, 漢語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술 방법도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 한편 일상문은 무슬림이 일상적 書簡에서 사용한 것이며 쉬운 한자가 자주 섞여 있다. 또 글쓴이의 발음에 따라 글쓴이 자신의 아랍어, 페르시아어의 변형된 발음으로 적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回族들이 이를 계승 발전시켰지만,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中國의 각 지역에 있는 回族들의 回族語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回族의 집단 주거지, 清真寺, 回族 학교 및 경문 연구관련기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回族, 특히 어린나이의 回族은 回族語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가 관찰한 中國 北京의 제일 유명한 回族 거주지인 牛街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쉽게 발견되었다. 그곳의 생활은 清真寺안의 阿訇이 回族語로 경전을 읽고 回族 노인들이 回族語로 말하는 것 외에, 回族語를 사용하는 모습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인터뷰한 牛街 거주자 및 牛街를 방문한 다른 지방의 回族들은 모두 그들 소재지의 漢族 사투리를 사용하였다. 回族 사회와 문화에서 언어의 漢化는 이미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다.

回族의 服裝은 과거 漢化의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현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복장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는 표식이며 일종의 언어다. 각각의 민족은 모두 자기 민족의 독특한 복장 문화가 있다. 回族의 복장은 민족의 특색이 확실하고,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단순하고 검

소하다. 장기간 여러 민족이 잡거해 살아온 원인으로 回族의 복장 특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回族들이 주로 모여 사는 거주지에는 중앙아시아인의 전통의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은 回族 특유의 무슬림 복장이다. 남자는 작은 하얀색의 모자를 쓰고, 여자는 각종 꽃무늬가 그려진 두건을 쓴다.

이들은 元代까지 다양한 전통 복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착용하였다. 그러나 明代에 이르러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明 太祖는 '胡服' 정책을 금하고, 回族에게도 漢族 복장을 강요하였다. 청대에 이르러서도 回族의 전통복장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였다. 雍正 初년에는 山東 巡撫 陳世宮과 安徽 察司 魯國華 등의 고위간부가 조정에 상소하여, 回族의 복장과 신앙 등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했다. 비록 2006년 5월에 中國 국무원은 回族의 전통 복장을 제일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정했지만, 지금은 현대화의 영향과 전통에 대한 무관심 속에 전통 복장을 만드는 사람도 감소하고, 이에 대한 기술과 정보도 소실되어 전통 복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回族 젊은이의 복장은 유행을 따라 전통 복장을 멀리하고, 回族의 전통 명절이나, 清真寺에서의 종교 의식, 冠婚喪祭 등의 특수한 행사 때가 아니면 回族의 전통 복장을 발견하기 힘들다. 回族의 복장은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漢族과의 문화적 접촉 속에서 漢族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게다가 오랜 기간 흩어져 살아왔기에 체계적인 전통 복장과 특징을 확립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回族 문화는 자신들의 독특한 역사와 더불어 漢族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구축되었다. 元代에는 색목인으로 분류되어 漢族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鄭和도 回族 출신이고, 명의 주원장과 왕후도 回族출신 이었던(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回族과 回族의 전통문화는 中國이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융화되어 가고 있다.

7) 回族의 주장은 주원장의 용모가 漢族과 달랐고, 왕후의 성씨가 마씨이기 때문에 回族이었다고 한다.

Ⅲ. 彝族 文化接變의 樣相

彝族은 2007년 기준으로 총인구는 776만 2,272 명으로 中國 少數民族 가운데 7번째로 많다. 雲南에 전체 인구의 61.7%가 거주하고, 四川에 23.7%가 살고 있다. 국외에는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범위와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소통이 단절된 곳이 많았기에 彝族들간의 이질성이 심하고, 지역에 따라 彝族에 대한 명칭이 달랐지만 지금은 彝族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彝族은 주로 中國의 雲南, 四川, 貴州, 광서 장족 자치구 등을 비롯하여, 베트남, 미얀마, 타이에도 분포하고 있다.⁸⁾ 彝族은 모두 3곳의 자치주와 17곳의 自治縣이 있다.⁹⁾

彝族은 回族과 달리 비교적 오랜 시간 편벽한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잘 지켜왔다. 물론 과거 漢族 문화의 수용이 있었지만, 이는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되고 中國 정부의 다양한 少數民族 정책이 시행됨과 더불어 교통과 통신수단 등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彝族 사회에 불고 있다. 그래서 彝族 文化變動의 양상은 回族처럼 漢族과 少數民族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少數民族의 전통 문화와 漢族 주도의 현대 문화와의 대립 구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文化接變도 강제적 양상에서 자발적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雲南省에 있는 15개 彝族自治縣을 비교해 보면,¹⁰⁾ 자치지역 행정은 표면적으로는 少數民族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다.

8) <http://www.lsz.gov.cn> <http://www.hhepb.gov.cn/> 검색일 2011년 10월 13일.

9) 金德三, 「彝族과 漢族의 文化接變 樣相 研究-雲南省 彝族의 精神文化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26집, 2012, 357쪽).

10) 雲南省에 있는 自治縣은 모두 15곳이다. 峨山彝族自治縣, 寧蒗彝族自治縣, 石林彝族自治縣, 江城哈尼族彝族自治縣, 巍山彝族自治州, 南河彝族自治縣, 尋甸回族彝族自治縣,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 新平彝族自治州, 漾濞彝族自治州, 祿勸彝族自治州, 景東彝族自治州, 景谷彝族自治州, 寧洱哈尼族彝族自治州, 鎮沅彝族自治州, 拉祜族彝族自治州.

〈표1. 2010년 雲南 彝族自治縣 공무원에서 少數民族비율¹¹⁾〉

	공무원에서 少數民族 비율	고위 간부 비율(%)
峨山		57(2007년말)
寧蒗	1149중 807명(2008년) 70.23%	
石林		34.44(과급), 27.03(처급) 2009년 9월
江城		78(과급) 2009년말
巍山	40.1	43.9(부과급)
南澗		
尋甸		28(부과급)
元江		68(과급)
新平	52.4%(2005년)	
漾濞		80(과급,09년)
祿勸		43(부처급), 46(부과급)
景東		43.1(과급)
景谷	46.2	67(부처급)
寧洱	59.2(2005년)	
鎮沅	196명	

위의 자료를 보면, 자치 지역에 일정 정도 이상의 공무원이 少數民族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彝族의 漢化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요식행위일 수 있다. 또한 소수민족 공무원 비율이 石林처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곳은 낮고, 江城처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곳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치 지역의 경제력과 少數民族의 비율을 따져, 少數民族 지역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金德三, 「雲南省 彝族自治縣의 比較分析을 통한 少數民族의 實態 研究」(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中國學論叢』 제 36집, 2012. 222쪽). 『中國民族區域自治發展報告』(2010), (郝時遠, 王喜恩, 主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을 중심으로 정리.

〈표2. 2010년 雲南 彝族自治縣의 少數民族 비율과 총생산액 순위〉¹²⁾

전체 인구 중 少數民族 비율	自治縣	총생산액 순위
20% 이상	尋甸回族彝族自治縣	2
30% 이상	祿勸彝族苗族自治縣	6
40% 이상	巍山, 南澗, 景東, 景谷	9, 11, 8, 3
50% 이상	寧洱, 鎮沅	10, 12
60% 이상	峨山, 新平, 漾濞	5, 1, 15
70% 이상		
80% 이상	寧蒗, 江城, 元江	13, 14, 7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소수민족 비율과 총생산순위는 반비례한다. 특히, 寧蒗彝族自治縣과 江城哈尼族彝族自治縣의 경우가 그러하다. 少數民族 지역의 경제적 환경이 좋다는 것은 漢族의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漢族의 유입과 이민족의 유입이 증가하면, 少數民族의 전통 문화와 가치가 보존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漢化도 자연스레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발전은 도시화와 현대화를 가속시키고, 외부 문화의 유입을 유도하여 彝族의 전통 문화를 훼손할 것이다.

경제적 발전에 의한 彝族 전통 문화의 훼손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평균 일인당 생산 총액이 石林彝族自治縣은 11,300원, 尋甸回族彝族自治縣은 5,899원, 祿勸彝族苗族自治縣은 5,200원, 景東彝族自治縣은 5,886원, 鎮沅彝族哈尼族拉祜族自治縣은 5,448원에 불과한 반면, 2008년 中國의 국민 평균 일인당 생산 총액은 22,600원이었다. 이로 미루어 彝族 自治縣의 경제적 상황은 中國 평균에 못 미치기에 앞으로 경제적

12) 石林彝族自治縣은 통계 자료에서 누락되었는데, 이곳은 전체 거주 인구 중에 彝族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9%를 차지한다. 이곳은 다른 自治縣과 달리 관광 지로서 외부인과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少數民族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기는 쉽지 않다. 결국 祿勸彝族苗族自治縣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石林의 총 생산액 순위는 4위에 해당된다. 金德三, 「雲南省 彝族自治縣의 比較分析을 통한 少數民族의 實態 研究」(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中國學論叢』 제 36집, 2012. 225쪽) 『中國民族區域自治發展報告』(2010), (郝時遠, 王喜恩, 主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을 중심으로 정리.

발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다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彝族 자치지역에 漢族 등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 彝族의 전통 문화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현대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 문화와 가치관을 바꿔 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中國 정부가 내수 증진을 위해 실시한 ‘家電下鄉’ 정책은 中國의 少數民族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문명의 이기를 맛보게 하였다. 그 가운데 현대화와 도시화의 전파자인 TV의 보급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무너뜨린 커다란 사건이었다.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의 경우만 해도 TV 보급률이 88.7%이고 나머지 雲南의 다른 彝族自治州은 94%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V와 彝族의 생활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2003년 12월 당시에도 아이들이 놀 때나, 어른들이 무료하게 지낼 때, 혹은 일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TV 앞에 둘러 앉아 세상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생활 습속과 일상생활 패턴, 전통 문화와 세상과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¹³⁾ 여기에 연구자가 답사한 2012년 4월의 石林彝族自治州 외곽지역 간선 도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GPS가 작동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편벽한 다른 彝族 자치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것이고, 이러한 예가 石林彝族自治州에서 미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石林彝族自治州은 다른 彝族 자치지역과는 달리 성도인 昆明에 있고, 교통시설이 우수하고,石林이라는 대규모 관광지가 있어 외부 사람과 문물의 유입이 많고, 서비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서,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다른 14개 彝族 자치지역과 달리 2008년말 기준으로 재정수입이 5.38억원으로 2위에 해당하고, 주민평균지배수입은 13804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¹⁴⁾ 이러한 환경은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少數民族의 비율을 낮추고,¹⁵⁾ 대

13) 李春霞, 『電視與彝民生活』(中國: 四川大學出版社, 2007)

14) 반면에 농민평균수입은 4216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평균지배수입이 1위가 된 것으로 미루어 石林의 산업이 농업보다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에 치중되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少數民族 비율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4.9%를 차지, 전체 15개 현 가운데 13위

도시로의 민족 이동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민족과 민족전통문화의 자연스런 해체를 유도하였다.

특히, 1978년 이후 시작된 개혁개방의 여파로 中國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 개방화 등은 中國 少數民族 사회를 漢族과 少數民族의 구도에서 전통과 현대의 구도로 변형시켜 놓았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 속에 少數民族과 이들의 문화가 파괴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다. 현대화와 도시화를 접한 彝族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자치주를 떠나고, 민족의 틀을 벗어난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이주를 희망했다. 彝族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러한 꿈을 위해 昆明도 좋지만, 南寧이나 深川으로의 이주를 원했고, 가능하다면 上海로의 이주를 희망했다.

이에 더하여 中國 정부는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西南開發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中國의 서부 동부 지역 등,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곳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¹⁶⁾ 특히, 8%성장을 10년 동안 유지하려는 ‘保八’에 힘입어 中國에 도시화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현재 51.3%인 도시화율을 65%수준으로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며, 경제적 침체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少數民族 사회에는 전통의 단절, 少數民族의 분리와 분산, 少數民族의 개인화를 유도하게 된다. 개인화의 경우는 가족의 공간적 분리로 연결되고, 자연스레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族內 결혼이 아닌 族外 결혼으로 少數民族 내부의 민족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少數民族 젊은이들에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 및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한 외부 문화의 직·간접적 접촉은 문화영역을 위계화시켜, 少數民族의 전통문화를

에 해당한다.

16) 雲南을 포함한 서부 12개 성, 자치구, 시(雲南, 內蒙古, 四川, 陝西, 重慶, 新疆, 寧夏, 廣西, 青海, 貴州, 甘肅, 西藏)에 대한 지난 10년 동안의 개발은 이곳의 GDP를 가파르게 상승시켰다. 예를 들어, 2000년의 16655억 원이 2009년에는 66973.5억 원으로 성장하여,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전국 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개인 평균 생산총액도 4624원에서 18286원으로 증가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統計年鑒, 『中國統計年鑒』(2010), 19쪽.

스스로 비하하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의 조상과 문화에 대한 ‘부정’과 외부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현상은 彝族의 문자와 언어에서 이미 발견된다. 彝族의 문자는 약 천 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漢語를 사용한다. 彝族의 문자는 일부 민족에게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自願的’ 원칙으로 소수민족 언어를 권장하지만, 소수민족에게 漢語의 습득은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결국 앞에서 본 回族 言語의 변천과정과 같은 양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IV. 回族과 彝族 文化接變의 含意

回族과 彝族 두 민족은 비교하기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 回族은 中國에서 제일 넓게 분포되어 있는 少數民族 가운데 하나로서, 주로 寧夏回族 자치구에서 거주하지만 中國의 현존하는 행정구역 가운데 약 96%의 현금 행정구역내에 回族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彝族은 中國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편벽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回族은 북방을 중심으로 두루 퍼져 거주하고, 彝族은 남방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물론, 彝族도 回族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이질성이 심하다. 그러나 彝族은 같은 민족이 함께 거주하였지만, 지리적 특성상 각각의 문화적 특징을 지닌 채 전통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回族은 ‘大分散 小集中’의 형태로 거주해서, 回族의 일부 집단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漢族의 문화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것은 彝族 自治縣의 비교에서도 발견된다. 石林彝族自治縣은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발달하고 대도시와 근접해 있어, 도시화와 현대화가 빨리 진행되었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높고, 漢族과 외지인의 유입이 높고, 彝族의 비율이 낮다.

반면 回族이 믿는 이슬람교는 이들의 정신문화와 정체성을 공고히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彝族에게 원시신앙의 종교가 남아있지만 이는 현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문화의 응집력에서는 回族이 彝

族보다 강할 수 있지만, 집단거주지역 외에는 이미 이러한 의식이 많이 약화되어있다.

回族이 교통의 요충지에 몰려 거주한다면, 彝族은 편벽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回族이 漢化에 능동적이었고 이미 오래전에 시도했다면, 彝族은 소극적이었고 이제 진행중이다. 그러면서 回族은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을 받았고, 彝族은 이제 받기 시작했다.

각 민족의 문화는 어느 민족이건 예외 없이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인 것을 포괄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수용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처럼 문화는 고정적일 수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변하면서 상호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나간다.

두 문화간의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는 문화변동은 文化接變과 관련된다. 문화접변을 자발적 문화접변과 강제적 문화접변으로 구분한다하여도 漢族과 少數民族간의 문화접변은 강제적인 요소와 자발적인 요소가 함께 병행되면서 결과는 문화 종속의 형태에 가까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漢族과 少數民族 간의 문화 교류는 결과적으로 중립적이기보다 문화 종속에 가까운 문화지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漢族과 少數民族의 도식을 넘어서는 전통과 현대라는 구조 속에 자발적 양상의 문화 변동이 少數民族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적인 방법과 이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과거와 다른 형태의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강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서부지역은 상황이 다르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少數民族은 시대

17) 이에 대한 우려가 많고, 소수민족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中國은 '채찍'과 '당근'으로 상징화되는 강압과 유화의 관리전략을 위해 少數民族정책이라는 외피를 두른 통합 이데올로기를 활용했었다. 그런데 中國의 서북부에 해당되는 신장과 시장의 경우에는 허쉬만(A.O. Hirschman, 1970)이 지적한 '탈출'(Exit)이나 '항거의 목소리'(Voice)로 전환되는 징후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中國 정부의 통합정책을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받아들였던 少數民族들의 '순종적 태도'(loyalty)에 변화가 나타나고 지역간 불균형에 따라 일종의 '내부 식민

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자연스레 강제적 문화접변의 양상에서 자발적 문화접변의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은 도시화와 현대화와 더불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回族의 전통 복장이 경제적 논리로 시장에서 스스로 괴사하게된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少數民族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문화를 ‘自願的’인 양상으로, 수익을 위한 경제 행위의 일부로 박제화 시킬 것이다.

이제는 漢族과 少數民族간의 문화적 대립이라기보다는 전통과 현대의 대립 양상. 현대문명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화의 확대, 경제적 영향의 확장.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을 수액으로 삼아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통일된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사회 문화적 변동의 흐름은 이미 거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정체성이 오랜 시간을 거친 반복적인 사고나 행동을 통해 굳어져 버린 자신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등을 판단하는 근거라면, 回族과 위구르족의 정체성은 이미 각자의 판단 근거를 가진 상태로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回族의 이러한 변화처럼 彝族도 그리고 다른 少數民族도 변해 갈 것이다. 생존을 위한 자발적 漢化를 선택한 回族과 편의를 위한 자발적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는 彝族은 자신들의 전통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彝族이든 回族이든 현대화라는 거센 문명의 세례 속에 자신들의 전통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漢族과 다른 少數民族을 아우르는 새로운 中國 民族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動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든 문화가 변하듯이 少數民族의 문화도 변하고, 漢族의 문화도 변한다. 특히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변해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漢族의 문화뿐만 아니라 少數民族의 문화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少數民族이 처한 환경이 더

지’(internal colony) 상태로 전락하게 된 少數民族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통합전략에도 균열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박희, 「中國 남서부지역 少數民族의 문화변동」, 『아시아연구』, 2010, 10월. 57-58쪽.

열악하다. 과거 回族이 생존을 위해 漢化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제 彝族의 젊은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彝族은 개인 삶의 편안함을 위해 경제발전과 현대화 도시화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경제발전과 현대화와 도시화의 중심에는 민족적 색깔이 없다. 하지만 양과 질에서 漢族이 우세하기에 이러한 변화도 결국은 漢族을 기저로 하여 ‘하나의 中國’으로 변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양상의 문화적 변동에서 少數民族 사회는 변화와 소멸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 少數民族 사회는 완전히 소멸할 것인가? 少數民族의 사회 문화는 자신의 민족 문화를 이대로 상실할 것인가? 少數民族 社會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少數民族이 마주친 문제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민족은 전통의 현대화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즉, “교육의 발전과 민족의 과학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총괄적으로 …… ‘전통’은 현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방해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통의 지속성이 현대화의 전제와 기초가 되는데 전통의 흐름이 끊기거나 설 자리가 없다면, 현대화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 전통의 주체가 없다면 그 문화는 침체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의 현대화는 回族 무슬림의 존재와 발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¹⁸⁾

中國 정부의 의도대로 漢族을 이주시켜 민족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지원이 수반하는 도시화와 현대화로 전통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작은 少數民族 사회에 치명적이다. 이러한 것은 전통적으로 작은 규모로 흩어져 살고 있던 回族의 문화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彝族 自治縣의 답사와 젊은이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쉽게 예감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彝族 自治縣에서는 과거와 달리 현대화와 도시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물질 문화의 변화에 의해, 전통과 민족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자발적 문화접변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물론 그 의도나 시작이 강제적이었던 자발적이었던 상관없이, 적어도 외적으로는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한 少數民族 지구에서는 자발적 문화접변 양상이 감지된다. 즉, 이제 물리적 수단을 통한 강압이나 억

18) 杨文炯 「城市界面下的回族传统文化与现代化」, 『回族研究』2004年第2期

압 없이 ‘自願的’인 형태로의 민족융합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V. 結論

중구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55개의 少數民族들은 漢族에 비해 소수이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국토의 63.7%에 달하며, 그들이 中國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少數民族 연구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학, 종교학, 문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의상학, 언어 문자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가치가 있다. 少數民族의 전통 풍속과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서 관광자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미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中國의 민족은 하나의 中國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잡 미묘하다.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사회의 발전, 사회제도의 변화, 전쟁, 재해, 이주, 민족간의 자연적인 동화 등의 원인으로 분해, 와해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집단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인류사회의 각 민족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왔다. 어떤 시기에는 적대시하며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어떤 시기에는 평화를 공존하기도 했다.

中國은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후 국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하여 수많은 少數民族을 하나의 中國에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많은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中國에서 민족간의 갈등을 제거하고 민족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존립과 깊이 관련된다. 1949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비교적 원만하게 민족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少數民族 정책의 실시, 中國 경제의 발전, 中國의 국가적 지위 향상 등이 서로 입체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가져다준 경제적 풍요는 부의 불균형으로 사소한 불만도 폭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계층적 지역적 민족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풍요와 도시화와 현대화의 이점은 편벽한 곳에 사는 少數民族에게 전통과 민족을 벗어던지고 현대화와 ‘하나의 中

國'으로 가는 動因이 되었다.

본문에서는 回族과 彝族의 문화변동 양상을 알아보았다. 回族은 中國 내지의 漢族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왔고, 中國의 각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漢族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래서 漢族과의 혼혈도 많고 풍속과 문화 등에 관해서는 漢化가 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彝族은 오랜 시간 격리된 곳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와 현대화는 回族의 文化接變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민족과 이데올로기같은 가치에서 벗어나 자발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개인의 안녕과 평안을 중시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대화, 도시화, 경제 발전이 있을 뿐 漢化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은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후 국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하여 수많은 少數民族을 하나의 中國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回族과 彝族의 문화집변 양상이 달라진 것과 달리, 중국의 소수민족관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명확했고, 이러한 변화도 의도된 계획 속에 존재했다. 中國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스스로를 '統一的 多民族的 中華人民共和國'이라 생각한다.¹⁹⁾ 그리고 이것은 민족 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민족이 하나의 다민족국가를 형성하고 또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되는 것은 민족 관계사의 주요한 내용이다”²⁰⁾ 라는 관점이 결국 中國 民族 問題의 미래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사회의 발전, 사회제도의 변화, 전쟁, 재해, 이주, 민족간의 자연적인 동화 등이 원인이 되어 와해나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인류사회의 각 민족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 “원시부족의 理想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치유되리라는” 것처럼 少數民族 전통문화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²¹⁾ 그렇다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정착민을 보면서 머물러 사는 자의

19) 劉先照, 韋世明, 『民族文史論集』, 民族出版社, 1985, 22쪽.

20) 孫進己, 「我國歷史上民族關係的几个問題」, 翁獨建 編 『中國民族關係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108쪽.

21) 루스 베네딕트, 이종인 옮김, 『문화의 패턴』, 연암서가, 2008, 54쪽.

안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목격했다. 안락은 스스로를 안락사시킨다”는 염려로 少數民族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도 아니다.²²⁾

中國은 민족동화의 방식이든 민족융합의 방식이든 결국 소수의 민족이 와 해되어 거대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와 다르게 자발적 형태로 ‘하나의 중국’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의도된 ‘自願的’ 민족융합을 위한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의 확충을 통한 것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과정이 ‘다른 의지와 他律的 선택’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少數民族 당사자의 의지와 自願的 선택’으로 포장되어 보이는 ‘錯視’현상과 대안이 없다는 막막함, 그리고 이러한 것의 확장과 주변국으로의 확대에 대한 염려다.

❖ 참고 문헌

- 龔學增 外, 『當代中國民族宗教問題』,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0
 起國慶, 『彝族畢摩文化』, 四川文藝出版社, 2007.
 김종래, 『유목민 이야기』, 꿈엔들, 2008.
 覃光廣 외, 『中國少數民族宗教信仰』, 대학사, 1997.
 루스 베네딕트, 이종인 옮김, 『문화의 패턴』, 연암서가, 2008.
 馬維良, 『雲南回族歷史與文化研究』, 雲南大學出版社, 2000.
 蕭萬源 外 主編, 『中國少數民族哲學史』, 安徽人民出版社, 1992.
 楊學政, 『雲南宗教史』, 雲南人民出版社, 1999.
 翁獨健 編, 『中國民族關係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王繼超 外, 『彝族傳統信仰文獻研究』, 貴州民族出版社, 2010.
 龍正清, 『彝族歷史文化研究文集』, 貴州民族出版社, 2006.
 劉先照, 韋世明, 『民族文史論集』, 民族出版社, 1985,

22) 김종래, 『유목민 이야기』, 꿈엔들, 2008, 26쪽.

- 易謀遠, 『彝族史要』,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 李維漢, 『統一戰線問題與民族問題』, 人民出版社, 1981.
- 李春霞, 『電視與彝民生活』, 四川大學出版社, 2007
- 張純德 외, 『彝學探微』, 雲南大學出版社, 2007.
-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鑒』(2010),
- 巴莫阿依, 『彝人的信仰世界』, 廣西人民出版社, 2004
- 郝時遠, 王喜恩, 主編, 『中國民族區域自治發展報告』(20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 金德三, 「문화접변으로 바라본 소수민족 교육」, 『教育問題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6.
- 金德三, 「彝族과 漢族의 文化接變 樣相 研究-雲南省 彝族의 精神文化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26집, 2012, 3
- 金德三, 「雲南省 彝族 自治縣의 比較分析을 통한 少數民族의 實態 研究」,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中國學論叢』 제 36집, 2012.
- 蘇克明, 劉俊哲, 「試論彝族先民的天人觀」, 『西南民族學院學報』, 西南民族學院, 1994年.
- 楊文炯 「城市界面下的回族传统文化与现代化」, 『回族研究』 2004年第2期
- 王路平, 傅賁中, 「試論古代彝族宇宙論的產生和形成」, 『雲南社會科學』, 雲南社會科學, 1991年第5期.
- 박희, 「中國 남서부지역 少數民族의 문화변동」, 『아시아연구』, 2010, 10월.
- 孫進己, 「我國歷史上民族關係的几个問題」, 翁獨建 編 『中國民族關係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 황병하, 「신장의 이슬람역사와 中國의 대 이슬람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0-1호, 2009.
- 황병하, 「위그르족·回族 무슬림의 정체성과 문화접변 양상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0-3호, 2010.
- 조선일보 12. 11.3 A8
- <http://www.lsz.gov.cn> <http://www.hhepb.gov.cn/> 검색일 2011년 10월 13일.

❖ ABSTRACT

Modality and implication of chinese minority group's cultural change: focused on hui-zu's culture and yi-zu's culture

Kim dug sam

This study focused on concretely how minority group's attitude accepting han-zu's culture changes. In the past, minority group's culture and han-zu's culture were acculturated spontaneously, not forcibly. But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founded and control of chinese government was intensified, control and interference of minority group area became aggressive, and acculturation became compulsory. However,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by economic affluence and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according to economic affluence, acculturation of minority group's culture and han-zu's culture is changing from forced acculturation to spontaneous acculturation. Still there are some areas where mutual friction lasts because of forced acculturation. But except some areas the stream is changing rapidly to spontaneous acculturation.

In the text, this study investigated process and present state of acculturation focused on hui-zu that implemented aggressive acceptance of han-zu's culture relatively early.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yi-zu society and cultural change focused on their spontaneous acculturation. In the modern society setting a high value on convenience and personal happiness rather than ideology and value, value of race becomes less attractive to young people of minority group who know modern civilization and convenience of city. In this respect, maybe hui-zu society is future of yi-zu society and minority group society.

Key Words

중국 소수민족, 이족, 회족, 한족, 문화접변

Chinese minority race, Yi-Zu, hui-zu, han-zu, Acculturation. cultural change

176 비교문화연구 제29집 (2012. 12.)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